

향일암에 군사시설이? 지역민·불교계 반발

9월 1일 광주31사단 입구서 반대시위 벌여

국내 4대 기도성지 중 하나인 관음기도도량 향일암 인근에 군부대 시설 신축이 진행돼 지역주민들과 불교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논란의 군사시설 위치는 거북머리가 경전을 지고 바다로 향한다는 의미를 지닌 향일암 일대에서 거북머리에 해당하는 곳이다. 향일암은 거북이 등의 경전 부분이다.

상국립공원 일원이자 해양관광도시 여수시의 랜드마크로 종교적 가치뿐만 아니라 생태환경과 역사문화적 가치도 매우 높은 곳"이라며 "최근 21세기 관광산업을 추진하는 여수시의 핵심동력이 될 곳으로 군이 이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향일암 거북머리에 군사시설 신축 계획 향일암 측 "생태 훼손 심각"

지역주민들도 신축반대 1인시위 진행했다.

향일암 주지 우석 스님은 이날 시민단체의 성명발표를 통해 환경도시 육성과 생태·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결정에서의 주민참여를 장려하는 거버넌스 구성을 촉구했다.

향일암 주지 우석 스님은 이날 시민단체의 성명발표에 앞서 "향일암은 연간 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우리 문화의 보물고"라며 "군부대 시설 신축으로 인해 이러한 역사문화 환경에 대한 훼손이 우려된다. 현재 군생활관 위치도 좋지 않으며 현실적

이날 자리에서는 향일암 주지 우석 스님, 김상두 시민위원회 상임대표, 김경현 주민대표 및 지역 시민단체 10여 명 참석했다.

시민위원회는 이날 성명발표를 통해 환경도시 육성과 생태·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결정에서의 주민참여를 장려하는 거버넌스 구성을 촉구했다.

시민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여수시, 국방부 등에 병영 생활관 신축에 대한 이전 신축입장을 밝히고, 적극적인 사태해결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여수시와 국방부 등 정부 측에서는 여전히 강행하려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국방부의 공사강행 방침은 지역갈등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여수 향일암은 다도해 해

향일암에서 바라본 거북머리 지형모습. 사진 원 안에 거북머리 부분으로 군생활관이 들어선다.



향일암에서 바라본 거북머리 지형모습. 사진 원 안에 거북머리 부분으로 군생활관이 들어선다.



향일암 불자들과 시민들의 시위 모습

으로 더 좋은 곳에 지어 좋은 환경에서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시설은 지난 2014년 11월 국방시설본부에서 국립공

원관리공단 임포소초 병영 생활관 신축 혐의를 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국방시설본부는 2014년 말부터 계획을 세워 4060㎡ 부지에 연면적 1295㎡ 규모의 2층 시설을 짓고 있다. 이후 12월 임포주민들이 국민신문고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접수를 하면서 반대시위를 벌였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방부31사단과 여수시의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 강행 움직임에 2015년 8월부터 여수시민협의회에서 신축반대 성명 발표 및 여수시청과 군부대 입구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해오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란분절은 이웃을 돕는 자비의날"

전주 금선암, 8월 28일 군부대 초코파이 9600개 전달



전주 금선암(주지 덕산)이 우란분절을 맞아 군 장병들을 위한 초코파이 100상자를 전달했다. 금선암은 8월 28일 '우란분절 공덕 회향법회'를 열고 육군 35사단 호국충경사에 장병들의 초코파이 100상자를 전달했다. 총 9600개로 시가 280만원 상당이다.

후 지역불교계의 관심이 멀어졌었다"며 "우란분절을 맞아 불자들의 정성이 장병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돈 금선암 신도회장은 "불자들의 작은 정성이 군 불자들에게 큰 힘이 된다"며 "지속적으로 35사단을 비롯한 군 병당의 후원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은 "최근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에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는 힘든 시기, 군에서 보내고 있는 장병들을 위해 불자들의 정성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 금선암 불자 중 올해 회갑을 맞은 불자들이 회갑여행 비용을 절약해 9월 20일 35사단 장병들을 위해 위문법회를 열 예정이다. 금선암 불자들은 지난해에도 회갑기념 수계법회를 연 바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스님은 이어 "전라북도를 방어하고 있는 향토사단인 35사단이 임실로 이전한

장흥댐 수몰영가 및 한국전쟁 희생자 추모

장흥 보림사 8월 30일 영산대제 귀농인과 다문화가족이 참여해



장흥 보림사(주지 일선)는 8월 30일 '제2회 보림사 수몰무차 영상대제'를 개최했다. 이번 영상대제는 지난 2006년에 완공된 장흥댐 수몰 영가와 한국전쟁 가자산에서 희생된 영가와 동학농민 전쟁의 고혼 영가들을 위한 것이다.

영산대제에는 일선 스님, 장흥사암연합회 회원스님, 김성 장흥군 군수를 비롯해 500여 명의 대중이 동참했다. 특히 이번 영상대제에는 행편이 어려워 조상을 모시기 힘든 귀농인들과 다문화가정 식구들이 참여해 더욱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서는 1부 천도의식, 2부 문화공

연이 진행됐으며 명부전 주불 지장보살과 무독귀왕, 도명존자 점안식도 봉행했다.

주지 일선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보림사 영산제는 조선시대부터 시작된 전통으로, 참선을 하는 선종 사찰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고자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림사는 신라말 개산했던 구선선문 중의 하나로 보조국사 체증 스님이 남원의 실상사에 이어 두 번째로 개산했다. 경내에는 국보 제117호인 철조비로자나불좌상(鐵造毘盧舍那佛坐像) 등이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정읍교도소 내 불교법당 개원

올해 2월 문을 연 정읍교도소 내에 불교법당이 개설됐다.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와 정읍 내장사(주지 혜산)는 9월 2일 정읍교도소에서 불교법당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개원법회에서 대우 스님은 "한순간의 실수로 영어의 몸이 되어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중생을 위하고 참회하는 삶을 살아가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는 내장사 대우 스님, 혜오 스님, 선운사 사회국장 도심 스님 등 스님들과 김영기 소장을 비롯한 정읍 교도소 관계자, 불자 재소자 등 50여 대중이 참석했다.

이번 불교법당 개원은 정읍 교도소 종교교정활동으로는 최초다. 선운사와 내장사는 개원법회를 계기로 지역불교계와 함께 정기적으로 정읍 교도소 교정교화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화엄사 화엄문도회, 학인 장학금 지급

구례 화엄사(주지 영관)는 8월 27일 화엄사 승가대학 해원당에서 화엄문도회 장학금 수여식을 봉행했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는 주지 영관 스님, 승가대학 학장 종곡 스님을 비롯해 화엄사 승가대학 장학생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화엄문도회는 11명의 학인 스님들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영관 스님은 인사말에서 "화엄사 승가대학 학인스님 전원이 사회복지학과 이수를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장학금 수여 정책을 통해 강원 재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더 체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순천대 교수회, 사찰서 템플스테이 실시

순천대 교수회(의장 김정빈)는 8월 27~28일 구례 화엄사에서 템플스테이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현직 교수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화엄사 주지 영관 스님과 차담, 예불참석, 연수국장 동호 스님의 '불교문화와 예술' 지도, 총무국장 효광 스님의 '간화선 실상', 화엄사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강연 등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이종수 순천대 지리산권문화연구원 불교문화연구센터장은 "이번 순천대 교수회 템플스테이로 순천대와 불교계가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교수들에게 불교문화가 종교적 의미로서가 아니라 우리 고유의 문화로서 체험하는 기회도 됐다"고 말했다.

법주사 9월 17일 '금동미륵대불' 회향대법회

법주사(주지 현조)는 메르스 확산에 따라 미뤄던 금동미륵대불 개금불사 회향대법회를 9월 17일 연다고 밝혔다.

잘 변색하지 않는 '골드 펄'이라는 인조금이 7~8미크론(0.007~0.008mm) 두께로 칠해졌다.

회향대법회는 17일 오전 10시부터 경내 금동미륵대불 앞 아담법석에서 펼쳐진다. 법회는 남북통일과 세계평화를 기원하고, 금빛 새 옷을 갈아입은 금동미륵대불 회향식을 겸한 자리로 마련된다.

한편, 금동미륵대불은 신라 혜공왕 12년(서기 776년)에 진표율사 7년간의 노력 끝에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 말기에 대원군의 당백전 주조를 위해 몰수되는 운명을 맞았고, 1939년 시멘트 불상으로 복원됐다. 법주사는 1990년 붕괴 직전의 시멘트미륵대불을 해체하고 청동미륵대불을 세운 뒤 2002년 불상 전체를 금으로 치장했다.

법주사는 지난해 9월부터 자부담금 7억 원을 들여 경내에 자리 잡은 금동미륵대불의 표면을 뒤덮은 녹과 오염물질을 벗겨내고 새로 금박을 덧씌우는 개금불사를 했다. 미륵대불에는 햇빛이나 비바람에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가격 10만원 ⇨ 90,000원

입금계좌 : 동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詩人 김하리 합장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문(39:25)	제8, 오색제자수기(21:11)	제15, 종지용출품(21:13)	제22, 속루품(04:36)
CD02-제2, 방편품(46:51)	CD06-제9, 수학무학인기(11:22)	제16, 여래수랑품(21:15)	제23, 약왕보살본사(23:10)
CD03-제3, 비유품(54:48)	제10, 법사품(18:39)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24, 보살보살품(16:12)
CD04-제4, 신해품(30:24)	제11, 건보탈품(22:19)	제18, 수화공덕품(13:23)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5, 약초유품(16:08)	제12, 재바달다품(15:54)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6, 다라니품(10:07)
제6, 수기품(17:13)	CD07-제13, 권지품(10:0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7, 묘장엄왕본사(14:46)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14, 안락행품(27:27)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언론샵